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0월 9일(주일) 제1118호



지난 7월 실시된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 성도들이 버스를 이용해 교회에 오가고 있다.

행복한 불편함, 배려가 믿음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 교회주차장 이용 제한 사회선교부, 환경과 교통, 이웃 배려하는 캠페인 실시

오늘(9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 날이다. 사전에 주차스 티커를 발부 받은 차량 외에는 교회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서빙고는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10살 미만 자녀가 3명인 경우만 교회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다

고 동작대교 위 갯길, 신동아아파트, 삼익아파트, 반도아파트 등 교회 주변에 불법주차해 해서는 안 된다.

양재는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교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늘 하루는 외부 주차장(양재 환승, 구림, 시민의 숲)도 이용할 수 없다. 외부주차장을 꼭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차비를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택시를 타고 오는 경우에도 강남대로나 일동제약 앞에서 하차해 도보로 교회에 와야 한다.

서틀은 이촌역에서 교회, 교회에서 이촌역, 양재역에서 교회, 교회에서 양재역을 오가는 구간만 운영된

다. 사회선교부가 주관하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은 환경과 교통, 지역사회를 배려한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이다. 올해 세 번째 시행이다. 성도들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택시기사 김일근 씨는 “복잡한 도로가 원활해서 좋고, 커피와 떡까지 대접해줘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본지에서 성도, 주민,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의식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성도 97%가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81.1%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송수원 성도는 “온가족이 함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오랜만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의: 02-3215-3434, 3436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일터는 선교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자”

요셉행전 2,335명 참석 ... “묵상하는 목수 될 것”

남성부흥축제 요셉행전이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한 이 시대 요셉들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남성부흥축제 요셉행전은 지난 5-8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됐다. 이 시대 요셉 2,335명이 참석해 소명을 깨닫고, 묵상하는 목수로 살기로 헌신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일과 영성의 대가 폴 스티븐스 교수가 네 번 강의하고, 천정호 변호사, 정진호 장로, 문애란 대표의 특별강의, 방송인 강석우와 오영실의 토크쇼, 이재훈 담임목사가 결단과 헌신의 시간 인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폴 스티븐스 교수는 이 시대 요셉

들에게 “다니엘처럼 우수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일하고, 느헤미야처럼 지혜로운 리더가 되고, 바울처럼 진심을 다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권면했다.

이재훈 목사는 “요셉이 용기 있게 순종했듯이 여러분도 직장에서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관련기사 4-5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정기후원 약정 3,500여 명 참여

7억 6천 2백만 원 후원 ... 프로그램 제작 등에 사용

지난 주일(2일)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를 주제로 실시된 ‘2016 CGNTV 정기후원행사’에 성도 3천5백여 명이 참여해 7억 6천 2백만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했다. CGNTV 후원자는 2만8천명으로 늘었다.

후원금은 2017년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모바일앱이나 CGNTV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후원코너를 클릭하면 정기후원이나 일시후원을 할 수 있다.

문의: 02-796-2243

확대 당회

일시: 10월 15일(토)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우리는 전 세계로 흩어진 온누리!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Acts29 비전컨퍼런스’ 개최
비전 나누고, 영성 공유하고, 목회자들에게 영적 재충전 기회제공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Acts29 비전컨퍼런스’가 지난 5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개최됐다. 미주, 일본, 중국, 중동,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등지에 흩어져 있는 30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 국내 캠퍼스 담당목사, 비전위원, 해외비전교회 협력위원, 베트남 현지목회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Acts29 비전컨퍼런스에서는 지역별 회의와 전체모임이 진행됐다.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영성을 공유하고,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재충전 기회를 제공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해외비전교회가 선교적 비전을 더욱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면서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다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회서기 정파종 장로는 “‘온누리’라는 이름으로 모인 30개 해외비전교회가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해외비전교회의 목회자들과 비전위원들을 격려했다.

박신웅 목사(엘바인 온누리교회)는 “오랜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온누리 가족들을 만나 행복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지인들과 하나 되어 더 열심히 Acts29 비전과 예수바보행전을 쉼내려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미헌 권사(광 온누리교회 비전위원)는 “한국에서 충전한 힘을 바탕으로 광 주변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했고, 베트남 현지 목회자 Ngoc Tot Nguyen 목사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책임목회제 시행에 따라 미주지역 해외비전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된 박재영 목사와 이정엽 목사도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들은 “책임목회제 시행 이후 교회가 더 안정되었다”고 답했다. 다음은 강의선 장로(이하 강), 박재영 목사(이하 박)와 이정엽 목사

(이하 이)와의 일문일답.

책임목회제가 궁금합니다.

강: 책임목회제는 해외비전교회가 온누리교회 부목사 또는 해외비전교회에서 임용한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해서 독립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사와 재정에 대해서는 독립하되, 미주 OMA(Onnuri Mission Alliance, 미주 온누리비전교회협의회) 일원으로서 Acts29 비전과 예수바보행전을 쉼내려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책임목회제가 시행된 곳이 어디입니까?

강: 미주 지역에는 13개의 해외비전교회가 있는데, 앵커리지와 LA, 네이퍼빌시카고, 광 온누리교회가 책임목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잦은 교제로 인한 교회와 성도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교회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박재영 목사(2014년 11월)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이정엽 목사(2015년 5월), 네이퍼빌시카고 온누리교회 이종재 목사(2016년 1월), 광 온누리교회 김형철 목사(2016년 8월)를 책임목회제에 따라 담임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미주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30개 지역에 해외비전교회가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Acts29 비전을 소명으로 교회가 교회를 낳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한식구입니다. 그들이 외지에서 쓸쓸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북돋워 줘야 합니다. 해외비전교회에 나가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Acts29 비전이 성취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책임목회제를 시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 해외비전교회 담당목사의 잦은 교제로 교회와 성도님들이 혼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안정이 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책임목회제입니다. 책임목회제가 시행된 이후 교회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더욱 구체적인 비전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성도 많이 회복되고, 안정되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유익이 많습니다. 교회의 안정, 중장기적 계획과 비전수립과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책임목회제 시행 이후 LA 온누리교회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잦은 목회자 교제로 인한 혼란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된 것 또한 큰 변화입니다. 성도님들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십시오.

박: “앵커리지는 영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침체됐습니다. 여러 이유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연

어가 알을 낳으려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꼭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앵커리지 지역의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신구(新舊)의 조화를 잘 이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기쁨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 합니다. 앵커리지를 품고, 다음세대를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한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LA에는 한인교회가 약 400개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영광교회, 순복음교회 등 잘 알려진 교회들도 LA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과 이름 있는 교회도 많고, 좋은 목회자도 많아서 축복받은 지역인 만큼 시험도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많아서 그런지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2, 3년 단위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LA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온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LA 온누리교회 주변만 해도 언어집단이 무려 40개나 됩니다. 각자의 문화대로 살고자 하다보니 치안이나 질서를 유지하려고 공권력이 더 세지고, 폭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들을 LA 온누리교회가 품고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LA 온누리교회가 쉬지 않고 선교훈련과 사역을 마음껏 펼치는 교회가 되도록,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빌립보서 2:5~8

“측량할 수 없는 낮아지심, 자발적 낮아지심, 죽기까지 순종한 철저한 낮아지심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나무든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씨앗에 있는 생명이 뿌리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에 연결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교만이라는 뿌리가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고,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뿌리와 연결된 인생을 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으로부터 가져온 생명의 뿌리와 우리가 연결될 때 비로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사탄이 지옥으로부터 가져온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면, 예수님이 천국으로부터 가져온 생명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구원의 흔적 ‘겸손’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기쁨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죄에 넘어지는 까닭은 생명의 뿌리에 연결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는 인간들이 주님의 생명과 복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에 모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참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교통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함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겸손이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죄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보다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 죄의 뿌리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부요하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외형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구원의 흔적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과거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만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교회, 많은 일을 하는 교회라는 교만조차도 교회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철저하게 겸손에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역사가 깊어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나타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역사와 신앙생활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교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겸손이 없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겸손 없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겸손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5절).

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품는다는 것은 붙잡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매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면 너희 영혼이 쉬을 얻을 것이다”(마 11:29).

빌립보서 2장 5절의 해설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우리가 일평생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입니다. 그분의 겸손,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5~8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높이 계시는 분인지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모르는 영광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기 때문에 찬양하지만 더 많은 영역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높으심을 모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후에 낮아지신 모습 자체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낮아지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는 가장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깨끗한 분이 동물의 먹이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물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것만으로도 사람이 되신 이후 그분의 낮아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 삶을 보고 감동받아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후 낮아지심을 보고 저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되신 이후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셨고, 만물의 주인이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 습니다. 그 하나님이 연약하고, 유한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보다 더 큰 낮아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되시되 건장한 청년으로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 화려한 궁궐에서 멋진 요람 위에 비단으로 둘러싸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 30년 동안의 삶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어느 신학자는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생애 기록 이전의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갈릴리 주변 호수의 어부들과 어울리며 목수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자마자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낮아지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낮아지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자발적입니다. 오늘 본문 6-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 속에 예수님의 자발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자발적 낮아지심은 자기주도성입니다. 자기를 비워 스스로를 낮춘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Humility’ 라는 단어는 겸손을 의미하고, ‘Humiliation’ 은 굴욕 당했다 혹은 모욕당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들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Humilitas’ 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겸손과 굴욕이라는 단어가 나뉘었습니다. Humilitas는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하면 겸손입니다. 반대로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면 모욕입니다. 똑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면 겸손이고, 내 자리가 아니야 혹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모욕입니다. 사실 겸손은 어느 정도의 굴욕을 겪으면서 배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원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 원하지 않는 상황과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13면에 계속)



거룩 다니엘

폴 스티븐스 교수
(리젠트 칼리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합니까?

예수님 증언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니까?

비우호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일하다

일터에서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동화와 슬림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화는 주위 문화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 슬림화는 동화되기 싫어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질 때 가장 매력적입니다. 교회에서 타국으로 보내는 사람들만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성육신과 변화적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문화를 습득할 뿐 아니라 언어에도 능통했기에 위의 두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속해 있

는 세상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이나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즉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세계관과 인류 역사에 대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 문화에 맞게 드러나 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늘 그를 경쟁상대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찾아 고발하려고 했지

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매우 투명하게 일했고, 등한시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일의 우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수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이웃들이 감탄할 것입니다.

일터사역은 개인적인 정직과 청렴이 있어야 합니다. 학문과 언어를 통해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터에서 예수님을 증거 할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일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리더십 느헤미야

일터에서 분별력 있고,
영리하게 일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태도, 성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왕국에서 영향력을 끼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느헤미야에게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외부로부터 반대와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저항은 조롱이었습니다. 그때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폭력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외부로부터 실망이라는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일꾼들의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일꾼들을 재정비하고, 믿음으로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반은 일을 시켰고, 반은 보초를 세웠습니다. 내면에서 욕심이라는 저항도 생겼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고 대립했습니다. 즉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그 형제들은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그가 성벽 재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리더였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분별력 있게, 영리하게 일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가능성, 계획과 끈질김 그리고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우

리의 태도, 성과,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서 진실로 기도하십시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일하거나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고 계획하십시오. 정말 지혜롭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터에서만 잘 살아도 영성이 성장합니다.

INTERVIEW

월요병

“직장=선교지, 월요병 없어질 것”

접대문화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기



“일하다보면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 집회가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문제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결정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월요병’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저도 직장에 선교하러 간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월요병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요셉행전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직장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동료들의 삶과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해줄 것입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생활할 것입니다.”

/ 최태식 성도(J4U)



“저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접대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접대가 없습니다. 저녁회식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점심회식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렇게 회사를 운영한지 벌써 30년입니다. 모든 기업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회 생활하는 것이 힘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 예수님처럼 훈련받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김철주 장로(양재 일대일사역)

사명 바울

바울, 일터에서의 갈등과 저항에 맞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회자,
일꾼, 선교사입니다.

일이 곧 목회이고, 일터
가 곧 목회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식탁에 빵이나 음식을 올려놓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복음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삶과 일을 균형 있게 하려면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일을 고귀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일을 통해서 이웃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사회에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각자의 은사와 창조물들을 청지기로서 관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섞여있지만 세상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총체적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영원한 대립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일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겐 승리와 희망을 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함으로 덧입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회자요, 일꾼이요, 선교사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안수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목회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인 끝은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영성 예수

소명의 거룩함을 보여주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
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닮고,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직업에서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께로 향함, 하나님을 닮아감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두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회를 구원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미션은 우리의 풍토와 풍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떠올려 보십시오. 주인이 양에게는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아무도 몰랐는데 나를 반겨주고 나를 찾아와줬다”고 칭찬했고, 염소에게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염소가 놀라며 “주께서 우리 앞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역이 어떻게 크리스천답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똑같이 예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

신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성령님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묻어 나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요셉의 순종하는 용기

목수 요셉의 용기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목상하는 목수들’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림처럼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만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목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목상하는 사람이 목수입니다. 목수는 정직한 직업입니다. 목수의 손길 하나하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수라는 직업은 정직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 어떤 육신의 부모를 선택할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면서 가장 의롭고 정직한 남자를 선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수라는 사명과 메시아의 아버지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요셉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

져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딜레마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면 평화가 깨지고, 평화를 추구하면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딜레마를 하나님의 계시로 순종함으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상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과 뜻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요셉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용기 있게 순종하십시오. 요셉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INTERVIEW

주일도 일하는 회사

직장도, 신앙도 감당하는 지혜

동료와의 갈등

나도 느헤미야처럼



직장생활 하다보면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교회 행사와 회사 일이 겹칠 때 갈등을 많습니 다. 사실 이 고민의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은 주일성수를 방해하는 직장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를 핑계로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주일에 일해야 하는 직장이라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되고,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직장도 신앙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원종호 장로(강동 온누리교회)



“직장생활하면서 동료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동료들이나 상사와 의견충돌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했었습니다. 이번 요셉행전 집회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인내하는 리더십이 인상 깊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저도 일터에서 느헤미야처럼 매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동료들과의 갈등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과 지혜를 구하면서 해결할 것입니다.”

/ 최학민 성도(여호수아공동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드리는 예배

주중예배 ... 버팀목, 위로, 치유, 회복, 평안 등 선물꾸러미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어디서 힘을 얻을까. 바로 예배다. 예배만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강력한 존재가 없다. 온누리교회는 예배드리지 않는 날이 없다.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예배를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드린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영적 회복을 경험하고,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주중예배를 소개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온누리교회는 치유, 성령, 목양, 찬양, 회복 등을 주제로 다양한 주중예배를 드리고 있다. 포문은 ‘새벽예배’가 연다. 새벽예배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을 위한 예배다. 서빙고는 오전 5시와 6시20분 분당, 양재는 같은 시간 사랑홀과 기쁨홀에서 새벽예배를 드린다.

월요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날이다. 서빙고 ‘월요어노인팅예배’와 양재 ‘월요QT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서빙고 월요어노인팅예배는 오후 7시 비전홀에서 드린다. 육신의 치유는 물론 방언 등 성령의 은사를 소망하는 예배다. 양재 월요QT예배는 오후 7시30분 화평홀에서 드린다. 한 주 동안 QT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예배다.

화요일은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는 날이다. 서빙고 본당에서 ‘화요Holy Impact 집회’가, 양재 기쁨홀에서 ‘화요성령집회’가 오후 7시30분에 막 오른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한 집회다.

수요일은 중보기도하고, 부흥을 소망하는 날이다. 수요일은 중보기도하고, 부흥을 소망하는 날이다. 수요일은 중보기도하고, 부흥을 소망하는 날이다. 수요일은 중보기도하고, 부흥을 소망하는 날이다.



화요 Holy Impact 집회

요저녁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수요일전여성예배’는 이 시대 마리아들이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 이 시대와 다음세대를 위해 부르짖는 예배다. 서빙고 본당과 양재 사랑홀에서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저녁 7시30분 서빙고 본당에서는 ‘수요목양예배’, 양재 사랑

홀에서는 ‘수요저녁예배’를 드린다. 수요목양예배는 순장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수요저녁예배는 말씀 부흥집회다.

목요일에는 꿈꾸고 춤추는 날이다. 목요경배와 찬양예배, 목요선교집회, 목요찬양예배(워십하우스)를 드린다. 목요경배와 찬양예배

는 서빙고 본당에서 오후 6시30분에 드리고, 목요찬양예배는 양재 기쁨홀에서 오후 7시50분에 드린다. 목요선교집회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다. 매주 오후 7시30분 서빙고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금요일은 회복을 소망하는 날이다. 금요회복예배와 금요철야예배를 드린다. 금요회복예배는 회복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 예배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20분 서빙고 본당에서 드린다. 3주 동안 새가족반 과정을 마치면 회복 소그룹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금요철야예배는 밤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는 예배다. 서빙고는 오후 9시50분 분당, 양재는 오후 11시 사랑홀에서 드린다.

토요일은 맞춤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DRS 이혼자를 위한 정기예배와 청년부 요셉공동체가 예배를 드린다. DRS 이혼자 정기예배에서는 예배드리고, 조별로 깊은 나눔을 한다. 매주 토요일 3시30분 서빙고 신관 401호에서 진행된다. 요셉공동체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서빙고 본당에서 예배드린다.

예배의 자리에서

Mon 월요일	Tue 화요일	Wed 수요일	Thu 목요일	Fri 금요일	Sat 토요일
버팀목	위로	하나님의 집	상처치유	관계회복	평안
“발달장애인인 아들 규례를 위해 4년 전부터 월요어노인팅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월요어노인팅예배는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예배입니다. 아이의 회복뿐만 아니라 부모인 저도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 규례 어머니(남서울은혜교회)	“처음에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러 왔는데 성령님께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저를 깊이 위로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노영숙 성도(SNS공동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갈망으로 수요일저녁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들어서자 하나님의 집에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 김주영 성도(여호수아공동체)	“고등학교 시절 목요경배와 찬양예배에서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함께 예배에 오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목요경배와찬양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아들도 저처럼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 찬후 어머니(인천예일교회)	“최근까지 하나님을 떠나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회복예배를 찾았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살 것입니다.” / 최감사 성도(가명)	“요셉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제 안에 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난 마음들이 요셉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 이한나 성도(요셉공동체)

목회칼럼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사 43:21).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수 만드신 목적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귀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자동차는 땅 위를 다니도록 만들어졌고, 새는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졌다. 만약, 새가 땅위를 다니는 것에 골몰하거나, 자동차가 바다 위를 다니는 일에만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새나 자동차는 불행한 존재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도 예배라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버거워하고 있다. 바쁜 일상과 죄악이 예배하는 삶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새벽부터 늦은 시각까지 격무에 시달리며 갈등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채로 쫓기듯이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로 살아가기 십상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창조의

주중예배로의 부르심

목적대로 예배하는 삶이다. 예배하는 삶이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배모임에 신령과 진정으로 동참하는 것과 일터, 가정, 학교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배하는 삶을 혼자만의 힘으로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배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듣고, 변화되어야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주중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도가 예배하는 삶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가졌던 직업들

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예배자’라는 한 가지 직업을 갖게 된다.

종일토록,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다. 바쁘고 힘든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주중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한다.



김재석 목사
(예배사역본부장)

성동광진공동체, 성림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 전수

“일대일과 함께 영혼구원, 제자양육”

일대일 제자양육이 온누리교회를 넘어 지역 교회로 뻗어 나가는 또 하나의 현장을 목격했다. 성동광진공동체 베드로다락방이 성동구에 위치한 성림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하고 있다. 6월 중순부터 박상송 장로가 김홍식 성림교회 담임목사, 황유정 권사가 박순옥 사모, 이한열 장로가 백남철 장로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새가족을 양육하고, 성도들의 신앙성숙을 위한 도구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대일 제자양육과 함께 새로운 꿈을 이루겠다는 포부도 생겼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를 이루는데 꼭 필요합니다.”

성림교회 김홍식 담임목사의 말 속에 강한 확신이 묻어있었다. 김 목사는 8년 전부터 성림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성림교회는 성도가 40여 명 남짓한 작은 교회다. 김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무엇보다 전도에 힘썼다.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했다. 열심히 전도해서 새가족들이 오긴 오는데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기존 성도들이 새가족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모를뿐더러 새가족 양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존 성도들이 새가족들을 세워주고, 성장



성림교회 박순옥 사모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을 돕고, 서로를 양육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김 목사는 그때가 가장 막막했다고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목사님, 작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때 한 줄기 빛을 만났다. 온누리교회 성동광진공동체 소속 유기선 집사가 김 목사에게 손을 내민 것. 유 집사는 성림교회 근처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 년에 한 번씩 성림교

회를 찾아가 무료검진을 해주고 있었다.

김 목사는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유 집사에게 호소했다.

“온누리교회의 양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온누리교회 일대일 제자양육이 성림교회로 전수되었다. 유 집사가 성동광진공동체에 이 같은 상황을 보고하자 리더십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상송 장로, 이한열 장로, 황유정 권사가 선봉에 섰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전수된 성림교회의 변화

가 벌써부터 눈에 섰다. 취약했던 새가족 양육은 물론 평신도들의 신앙성숙을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말 그대로 일석이조였다. 사실 성림교회 김홍식 목사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은 낯설지 않은 양육프로그램이었다. 10년 전 홍익교회 부목사로 섬기던 당시 일대일 제자양육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교육만 받았었는데 직접 목회에 도입해보니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 담임목사가 가장 먼저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았다고 자칭했다.

“목회자가 먼저 경험해봐야 평신도들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선수범하기로 했습니다.”

성림교회 김홍식 목사는 일대일 제자양육과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 5천 가구가 살고 있는 상가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카페교회’로 변신을 준비 중이다. 주중에는 카페, 주일에는 교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때 일대일 제자양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의 비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로 소망하고 있다.

“단순히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더 건 강하고, 더 아름다운 성도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자 꿈입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다락방 1사역’ 일산공동체 요한다락방, 요셉의 집

우리는 예수바보다!

“선생님, 내일 또 와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헤어질 무렵 요셉의 집 식구들이 눈을 반짝이며 조용히 묻는다. 그때마다 나는 활짝 웃는 얼굴로 다음 달에 또 오겠다고 대답하지만 사실 가슴이 찡하고, 마음이 울컥한다.

요셉의 집은 양주시에 위치한 40명의 성인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이다. 일산공동체 요한다락방이 1다락방 1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곳이다. 요셉의 집 식구들과의 첫 만남은 다락방별 사회선교 활동이 시작되었던 201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 만남을 계획했지만 ‘메르스’의 유행으로 방문이 연기되었다. 일산공동체 요한다락방 지체들은 먼저 그들의 기도제목을 받아 두 달 동안 한마음 한 뜻으로 중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첫째 주 토요일, 설레는 마음으로 20여 명의 일산공동체 요한다락방 지체들이 요셉의 집을 처음 방문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다락방 순원들이 정성스럽게 모아준 옷, 수건, 신발, 생활용품 등 선물꾸러미를 한아름 안고 갔다. 첫 대면이라 어색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요셉의 집 식구들은 우리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었다. 덕분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요셉의 집 식구들의 얼굴이 열



요셉의 집에서 진행한 미술활동.

마나 환하고, 순수한지 천사처럼 느껴졌다. 요셉의 집 식구들은 우리와 함께 방문한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시작된 일산공동체 요한다락방과 요셉의 집 식구들의 만남은 지금까지 매월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요셉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프로그램이 2시간 정도 이어지는데 보통 다함께 찬양, 함께하는 활동, 간식타임, 청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락방 찬양 리더의 기타 반주에 맞추

어 손뼉치고, 서로 끌어안고, 기쁘게 찬양 하다 보면 금방 가족 같은 친근함이 느껴진다. 두 팀으로 나누어 손을 잡고 ‘우리 집에 왜 왔니?’ 노래를 부르면서 ‘가위 바위 보’를 하다 보면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한다. 이어지는 함께하는 활동은 요셉의 집 식구들과 요한다락방 지체들이 어우러져 하나 되는 시간이다. 신체활동을 하면서 몸을 부대끼기도 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때로는 특별순서로 다락방 아이들이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에 귀 기울이고, 오카리나 연주에 맞춰 몸을 흔들며 함께 노래하는 요셉의 집 식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간식타임도 빼놓을 수 없다. 다락방 리더십들이 준비해간 맛있는 간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대화한다. 아들이 오면 줄 거라고 간식을 먹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요셉의 집 식구를 볼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요셉의 집 식구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강당을 나선다.

얼마 전 요셉의 집 선생님의 말씀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셉의 집 식구들이 온누리교회 팀을 엄청 좋아하고, 기다린다는 말씀이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픈데도 방에서 쉬지 않고 휠체어를 끌고 나왔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예수바보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

가끔씩 이 질문을 나에게 해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곤고한 자, 병든 자, 고 통 받는 자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바보의 삶 아닐까?

/ 조수현 집사(일산공동체)

황재명 목사의 이사야서 산책 3

이사야서, 누구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가?

성경의 예언자들을 보면 선지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신탁이나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하는데 있다. 황홀경에 빠져 이상한 소리나 행동을 하던 점술가와는 분명히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시는 소명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예언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서 소명이 주어지는 경우(아모스, 예레미야)와 예언자가 하늘 천상회의에 참석하여 소명을 받는 경우이다(이사야, 에스겔). 어느 경우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예언서는 주로 하나님의 뜻, 언약, 심판, 구원,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다(‘새 언약’ 렘 31:31-34, ‘평화의 언약’ 사 54:10, 겔 34:25, 37:26). 한마디로 예언서는 성경의 중심적 주제인 구속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척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 메시아 사역의 정당성은 이미 구약의 예언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 예언적 정당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롬 1:2).

예언서를 시대적으로 고찰해보면 기원전 800~600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예언하였으며(예레미야, 아모스), 기원전 600년 이후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

님께서 이루실 종말론적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예언하고 있다(에스겔, 스가라). 이런 예언적 계시의 시대적 흐름 속에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망을 균형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언서에 언급되어 있는 심판의 대상을 살펴보면 크게 예언자 자신의 나라(남유다 혹은 북이스라엘), 왕을 포함한 개인, 세계 열방 또는 이방나라들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 이방나라들도 포함한 전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심판이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열방 10개국의 심판과 통치 주권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사 13-23장). 그럼 이사야는 이방 국가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그 예언들을 선포하였던 것일까? 이방 국가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결국 그 예언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절대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 열방을 향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회개의 경각심을 주고자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예언은 심판의 메시지만

구원의 메시지만 일차적 목적은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 권면, 도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예언서의 말씀은 미래에 관한 예측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내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로 주어질 임박한 미래(주로 심판)를 경고함과 동시에 종말론적 구원을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시간대는 예언자의 동시대 및 임박할 내일 그리고 먼 미래(주로 종말론적 예언) 모두를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예언의 대부분은 먼 미래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인 ‘지금’, 그리고 ‘여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은 3인칭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1인칭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지금’ 내가 있는 ‘여기’를 향해 공의를 선포하시며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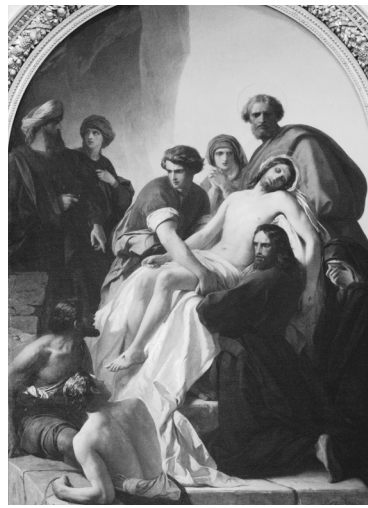
3인(人) 3색(色) 요셉들, 여호와의 돕는 자



▲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장면.



▲ 조르주 드 라 투르의 '목수 요셉'.



▲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요셉.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예요. 시인은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과 향기를 내뿜는 다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의 이름을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 그 꽃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물들과 생각하는 개념들에게 각각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명사(名詞)’라고 국어 시간에 배웠지요? 사람의 이름은 특별히 고유명사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를 통과한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고유한 이름을 부여 받고 불렸으며,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도 해요.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도 약간의 변화를 거쳐서 지금도 불리기도 해요. 많은 영어식 이름이 성경의 이름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Paul’은 사도 바울, ‘Peter’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Mary’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유래되었죠. ‘David’는 다윗, ‘John’과 ‘James’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Tomas’는 의심 많았던 도마, ‘Jacob’은 이삭의 아들 야곱, ‘Rachel’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에서 유래되었어요.

인기가 있는 이름은 성경에서도 꽤나 등장한답니다. 특별

히 요셉(Joseph)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신구약을 통틀어 총 12명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들 중 3명의 요셉을 소개할까 해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의 열한 번째 아들로, 꿈의 사람으로 유명해요. 외모가 준수했고,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그 때문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원만하게 지내게 되고,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오해를 사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임을 받았고, 딱 굶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이 기회가 되어 이집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 총리로 발탁돼요.

절망적인 노예 신분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리가 된 이후 그는 이집트와 중근동 지역에 밀어닥친 기근을 면하게 해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과 용서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일생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했고, 직업

은 목수였어요. 마리아와 약혼한 후 그녀의 잉태 사실을 알고는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포용력이 있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천사의 수태고지(受胎告知) 후에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기 예수 탄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정결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했고, 모세의 법대로 아기의 할례와 결례의무를 준수했으며, 헤롯왕의 학살 음모 소식을 전해 듣고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일이 조용해진 후 나사렛으로 돌아와 살았어요. 복음서의 기록에는 요셉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 때에도 없었고, 최후의 만찬이 준비된 다락방에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 절기 예배에 동행했던 기사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죽은 것으로 추측돼요.

세 번째로 부자(富者)였던 아리마대의 요셉이에요. 그는 아리마대 사람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예요. 산헤드린의 회원으로 출세한 고위직 관원이었어요. 그 럽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신실하고 의로운 신앙인이었고,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에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고,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헌신을 보여주었어요.

각자 시대와 지역은 달랐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인생의 족적을 남긴 3인 3색 요셉들은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이름의 뜻만큼이나 지금도 잊히지 않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 선생님, 가정에서는 아들, 남편, 아버지, 일터에서는 직원, 임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요셉들도 각자의 색깔로 또 한줄기의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갈 거예요. 시 ‘꽃’의 마무리처럼 ‘잊히지 않는 하나의 눈짓 같은 나만의 이름’을 가슴 깊이 간직한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렁주렁 맺히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요셉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을 테니 말이지요.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기고

일본의 복음화율은 1% 수준이다. 한국보다 먼저 기독교가 전래됐고, 이슬람 국가들처럼 선교에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유독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일본인들의 정신세계와 관계가 있다. 한국,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가 기독교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했다. 그 성장의 바탕에 기독교가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일본만 기독교와 상관 없이 성장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이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은 이것을 신앙의 힘이 아니라 특유의 근면정신과 노력으로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는 자부심이 굉장하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남의 시선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기니스루(気にする)’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걱정한다는 뜻이다.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낮아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크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레벨의 학교를 나와야 하고, 성공도 해야 하고, 타인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이 강하다. 사람을 우

상화시키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사람 중심이 되다보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다. ‘무라하치부’ (에도시대에 촌락 공동체 내의 규율 및 질서를 어긴 자에 대해 집단이 가하는 소극적인 제재행위나 따돌림)도 영향을 준다. 지역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무시하거나 따돌린다. 자녀들이 부모를 전도하려 해도 이러한 정서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일본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상업적으로만 이용한다. 한국은 성탄절이 법정공휴일이지만, 일본은 12월 23일이 법정공휴일이다. 이날은 일왕의 생일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거리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지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의미는 모른다. 선물 주고받는 날이 되어 버렸다. 그 리스도가 누구이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는 모른다. 학교에서도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일본에 신(神)이 많다는 것도 장애물이다. 일본에서는 모든 만물이 신이다. 학문의 신, 결혼의 신, 출산의 신, 술의 신, 전쟁의 신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일본에서 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가미사마(神様)’로 통용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가미사마’라고 부

일본 전도가 어려운 이유

른다. 유일한 하나님이 일본에서는 흔한 신 중 하나일 뿐이다.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는 신도(神道), 결혼할 때는 기독교식, 장례는 불교식으로 치른다. 모든 신앙을 포용하고 있다. 절대적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교만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인들을 전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선교사의 무덤이란 말이 나왔을까. 그러나 나는 온누리교회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선교의 희망과 빛을 보고 있다. 일본 목회자들의 평균연령이 60세일 정도로 일본 교회는 늙고 생기가 없다. 교회 자체적인 힘도 없는데 교단과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폐쇄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일본 교회가 러브소나타를 통해 연합하고 있다.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열정도 없던 일본 교회에 러브소나타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온누리교회에 정말 감사하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일본을 품고,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자비량으로 봉사를 하겠는가?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본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리더십과 성도들을 세우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와 일본어예배부가 러브소나타 행사 이후 ‘일대일 제자양육 세미나’와 ‘큐티 세미나’ 등의 후속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사회선교부의 1다락방 1사역처럼,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일본 지역교회와 결연을 맺는 것은 어떨까. 지속적인 응원이 있어야 일본 선교의 가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온누리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일본인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일본어예배 담당)

러브소나타 오사카 참가자 추가 모집

일정: 11월 22일 ~ 24일(2박 3일)
내용: 러브소나타 봉사, 현지교회방문 등
참가비: 82만원(항공, 현지 체류비 일체)
문의: 서울본부 02-749-1149

복음으로 개혁 외친 선각자_한국의 루터 월남 이상재 선생



이상재 선생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부터 복음을 전하다 죽은 선각자들이 있다. 왈도, 사보나롤라, 위클리프, 얀 후스가 그 대표적 인물들이다. 우리나라에도 교회의 개혁과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주인공은 월남 이상재 선생(1850-1927)이다. 그는 민족운동사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상재 선생은 1896년 서재필, 윤치호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설립했다. 부회장을 맡았던 이상재 선생은 국민계몽운동에 앞장섰다. 그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계기는 1887년 초대 주미공사였던 박정양의 영향이었다. 그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사상을 버리고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러나 개혁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독립협회가 수구파들의 공격으로 해체되고, 1902년에는 수구세력의 모함으로 한성감옥에 투옥되었다. 투옥되던 1902년과 1903년 그의 모습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1902년 투옥될 당시 그의 사진을 보면 표정이

어두운 데, 1년 후 사진에는 부드럽고 밝은 표정을 볼 수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1903년 그와 함께 찍힌 사진 속 인물들의 손에 책 한권씩이 들려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었다. 이상재 선생만이 아니라 김정식, 유성준 등 함께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상재 선생은 유서 깊은 양반가 자제로 예수를 믿지 않았었다. 그런 그가 감옥에서 서양의 역사, 철학, 문화 관련 서적과 성경을 접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상재 선생의 꿈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 호통을 쳤다.

“너에게 세 번의 기회를 줄 것인데 두 번은 네가 거절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거부하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

그의 꿈에 나타난 사람은 예수님이었다. 첫 번째 기회는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받은 성경이었다. 당시 성경을 읽었지만 그 내용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해 멀리했다. 두 번째 기회는 함께 독립협회를 설립한 인물들이었다.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많았는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동을 펼치자는 제안을 그가 반대했었다. 그리고 감옥에서 다시 성경을 접하게 되었다. 세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더니 말씀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그는 회개하며 눈물을 쏟았다.

감옥에서 나온 이상재 선생은 황성기독교 청년회(YMCA)에 가입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섬기는데 평생을 바쳤다. 이상재 선생은

죽기 전까지 성경공부를 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시도 성경을 놓지 않았다. 또한 이상재 선생은 청년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회장으로 치러진 그의 장례식에는 추모객이 10만 명에 달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한다.

그가 천국에 가기 전 잡지 <청년>에 ‘청년이여’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있다는 내용이었다. 참된 진실에 바탕을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외침이었다.

“오호라, 우리의 진실한 청년이여. 진실이란 천지간 인도상 원리, 정의임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가. 굳건히 지켜 잃지 않을 것인가. 용감하고 정직하게 갈 것인가. 자기를 수행하는 때와 타인을 상대하는 때와 무슨 사업을 경영하든지, 무슨 계획을 진행하든지, 허위는 단칼에 단절하고 진실만 행함으로 아무리 환란과 곤경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결국은 성공할 것이니 진실의 본원은 나의 양심상 부여하신 하나님의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중죄대악을 모두 용서하셨으니 특히 위선자의 죄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겠느니라.”

보름스당당에서 종교재판을 받던 루터의 마지막 말과 꼭 닮아 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소서. 아멘.”

바로 이것이 루터가 하늘로부터 얻은 지혜와 참 진실이다. 그 진실에 힘입어 위협과 모

함과 비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이상재 선생이 오늘날 청년들에게 이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하늘로부터 받은 진리로써 흔들림 없이 믿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 소망하고 있다. 참 진리를 안다면

루터와 이상재 선생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과연 나는 하늘과 호흡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덕주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한국교회사)

참 진리를 안다면!

복음으로 개혁을 외친 한국의 선각자

시간: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5층 경찬홀
내용: 10/13 한석진 목사
“제발, 하나가 되시오”
10/20 최영혜 선생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10/27 최태웅 목사
“신앙의 혁명으로”
11/3 최홍중 목사 “나는 죽었소”
11/10 정경옥 교수 “다시 예수로”
수강료: 1만원
문의: 02-764-4116
*강의영상은 11월 중 CGNTV에서 방영될 예정.



지난해 수능기도회.

수능, 6주 앞으로!

차세대, 수능6주 묵상캘린더 배부, 수험생 위한 기도회

수능이 6주 앞으로 다가왔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는 오늘부터 ‘수능6주 묵상캘린더’를 배부한다. 수능6주 묵상캘린더에는 수험생과 부모가 수능시험 당일까지 묵상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제목이 기록되어 있다. 차세대 교역자와 교사들이 수험생들에게 전하는 응원메시지

도 담겨있다.

11월부터는 수험생과 부모들을 위한 기도회가 이어진다.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서빙고 누리홀과 양재 JDS홀에서 오전 10시30분에 기도회가 진행된다(평일만). 수능시험 날인 11월 17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

서 ‘온종일 기도회’가 진행된다. 온종일 기도회는 수능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영희 성도는 아들에게 “네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수능6주 묵상캘린더

자카르타 국제대학 후원의 밤 개최

지난달 29일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후원의 밤 행사가 강남 노보텔에서 진행됐다.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는 교육선교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 이용규 선교사가 섬기고 있다.

자카르타 국제대학 후원의 밤 행사에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김홍주 목사(2000 선교 본부장)를 비롯한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용규 선교사는 참석자들에게 “교육선교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온누리교회는 9월 비전헌금으로 후원한바 있다. 후원문의: 070-4400-0596

/ 김영선 기자

야베스맘 2016 가을 세미나 개최

사별한 여성들의 모임 야베스맘에서 ‘2016 가을세미나’를 개최한다.

10월 11일부터 3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03호에서 진행된다. 사별자의 애도과정(허재기 교수), 사별 후 가족관계와 자녀양육(권오향 목사), 사별 이후의 법적문제(신현석 변호사)에 대해 강의한다. 회비는 3만원.

문의: 010-3217-9593, 010-7339-6392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서빙고, 양재, 도곡 차세대 신입교사 리트릿

신입교사, 교사 리더십 등 300여 명 참석

서빙고, 양재, 도곡 온누리교회 차세대 신입교사 리트릿이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 동안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됐다. 이번 리트릿에는 신입교사 200여 명, 리더십 교사 10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가했다.

리트릿에서 차세대 교사들과 교역자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다음

세대를 더 잘 양육할 것을 다짐했다. 저녁에는 부서담당 교역자들이 신입교사들을 대상으로 세족식을 진행했다. 신입교사 김예은 성도(양재 예쁨)는 “예상 못했던 세족식에 감동 받았다”면서 “받은 사랑을 차세대들에게 꼭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제4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개최

온누리아트비전 소속 작가 17명 참가

10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제4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에 온누리아트비전 소속 작가 17명이 참가하고 있다. 1차 전시회는 10월 5일(수)까지 원주 치악예술관, 2차 전시회는 10월 7일(금)부터 20일(금)까지 태백아트하우스와 원주 세브란스기독교병원에서 개최

된다.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는 교회와 대학교의 미술인선교회가 연합해서 개최하는 기독교 문화선교 전시회다. 이번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는 백석대학교 기독교미술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의: 010-9942-3249

/ 이소정 기자



오사카 기 · 도 · 제 · 목

- 10월10일(월) 일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흘러가기를
- 10월11일(화) 협력교회와 실행위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 10월12일(수)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10월13일(목) 스태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도록
- 10월14일(금) 이재훈 담임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 10월15일(토) 강사, 출연진 봉사자 가운데 성령의 기쁨 부음이 있도록
- 10월16일(주일) 안전과 날씨를 책임져 주시고, 오사카가 부흥하도록

온누리에배학교 수강생 모집

온누리에배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예배가 궁금한 초신자나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늘(9일)부터 11월 6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주일 오후 1시30분 온누리기독교문화전시관(서빙고 근린공원 내)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현장에서 하면 된다. 회비 2만 원. 문의: 010-7142-9167

/ 이소정 기자

젊은부부학교 44기 참가자 모집

결혼 12년차 이하 부부 대상

젊은부부학교에서 제4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젊은부부학교는 ‘다시 떠나는 신혼여행’을 주제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3주차(10월 29일)는 가평 교원비전센터에서 1박2일로 진행된다. 결혼 12년차 이하 부부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젊은부부학교 카페(<http://cafe.naver.com/marriage-builders>)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5만 원. 문의: 김용환 010-6602-4003

서빙고 헬로맘 임신부스쿨 참가자 모집

서빙고 헬로맘 임신부스쿨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7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서빙고 시온홀에서 열린다. 임신부와 임신을 기다리는 예비 엄마, 태교를 배우고 싶은 여성이 대상이다. 성경적 태교, 태아의 비밀, 남편과 함께하는 태교의 실제, 임신과 출산 후 마음관리 등을 배운다.

접수는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문의: 총무 010-5018-0241

/ 정현주 기자

141기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강생 모집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 14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능하다.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등록은 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 12만 원. 아버지학교는 1995년 두란노서원에서 시작했다. 아버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돕고 있다. 아버지의 영향력, 남성, 사명, 영성, 가정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9789-7316

/ 이소정 기자

■ 워십과이어 찬양사역팀 간증



/ 김양욱 성도(찬양공동체)

나에게 찬양은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내가 어릴 적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의 병환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가족들은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고, 부모님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렸다.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 최고의 시련이 찾아왔다.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했고, 버스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했다. 완전히 바닥을 치는 삶이었다. 그렇게 힘겹게 생활하고 있던 중 막내여동생의 권유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지금도 그날을 기억한다. 그때 설교하시던 김사무엘 선교사님을 말이다.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특별한초대 예배만 4년을 드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얼마랑 함께 서빙고 온누리교회 4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 흠뻑 젖어 있는데 엄마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예배드리

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의 목소리를 건어갈 것이다.”

너무나 뚜렷한 음성이었다. 그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기에 마땅한 자인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그리고 판단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찬양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마침 찬양사역팀원 모집광고가 나왔고, 나는 서빙고 4부 예배 찬양사역팀인 워십과이어에 지원했다.

찬양사역팀을 섬기면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나의 표정이다. 늘 우울하고, 힘들어 하던 내가 표정이 밝아졌다. 생활도,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서로 중보해주고, 권면해주는 워십과이어 식구들이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나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 내가 찬양으로 위로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또 누군가가 찬양으로 위로를 받고, 담대해 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들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 일본어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진승 성도(가정사역공동체)

내가 만난 구보 겐이치 씨

내가 일본어 일대일 제자양육을 위해 방문한 곳은 일본 시코쿠지역 젠쓰지에 위치한 젠쓰지 침례교회다. 약 30여 명의 신자들이 출석하는 교회다. 이 교회에서 나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한 구보 겐이치 씨는 2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긴 목사님의 아들이다. 3년째 신학공부를 하고 있다. 구보 씨는 아버지로 부터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을 때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고 한다.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경공부를 또 할 필요가 있는지 반신반의했다고 한다.

첫 인사를 나누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하려는데, 예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잠시 당황했지만 ‘사정이 있었겠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런데 나누는 과정에서 무언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4년 전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집회 DVD를 보고 내 기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가 부족해서 내 마음이 얼어붙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구보 씨에게 기도가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 구보 씨는 내가 어떻게 다카마쓰에 오게 되었는지, 내가 다니는 온누리교회가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나는 구보 씨와 삶을 나누면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자 처음에는 단단하던 구보 씨의 마음속 장벽과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음이 느껴졌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서로의 열정과 노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열심히 구보 씨와 교회가 사역과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했다.

이번 일본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깨달은 사실이 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젊은 자녀들을 통해 일본을 바꾸시려는 것 같다. 일본이 바뀌면 온 세계가 바뀔 것이라는 꿈도 갖고 계신 것 같다. 비록 지금은 일본에서 기독교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비로우신 주님이 그분의 거룩한 자녀들이 아파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는다. 일본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나 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기도할 것이다.

■ 이혼자행복학교 수료 간증



/ 전찬효(행복한교회)

이혼자행복학교는 특별했다

나는 직장에서 와이프를 만났다. 내 성격이 내성적인 반면 와이프는 활동적이었다. 편한 사람으로 여겨져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 아들도 태어나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

IMF가 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 가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주식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꾸 욕심이 생겨 조금씩 큰 액수를 투자했다. 그러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 큰돈을 날리고서야 와이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와이프는 나에게 대한 믿음이 깨졌다.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지만 한번 깨진 믿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뭘 해도 믿지 않았고, 애정도 식어갔다. 사이가 점점 멀어졌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악화됐다.

와이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집안일도 소홀해졌다. 밖으로만 돌았다. 결국 서로의 길을 가지며 헤어졌다. 나의 잘못으로 시작된 불행이 이혼으로 이어졌다. 좌절감이 정말 컸다.

그날 이후 진지하게 대화 할 상대가 없다보

니 일과 집, 주일에는 교회 일에 정신을 쏟아 내 마음 속에는 항상 응어리가 뭉쳐진 듯 답답함이 있었다.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에도 몇 번 나가 봤지만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 그러다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이혼자행복학교에 참석하게 됐다. 처음에는 이혼자행복학교도 특별한 것이 있겠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혼자행복학교는 특별했다. 정말 새로웠다. 한주, 한주 내가 느끼지 못한 상처들이 드러났다.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했는지 모른다. 참 많이도 울었다. 내성적인 성격과 자존감이 낮은 나에게 이혼자행복학교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 힘을 주었다.

가슴속에 뭉쳐 있던 응어리들이 하나둘씩 없어졌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면서 와이프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서서히 사라졌다. 하나님께 나의 잘못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털어놓고 마음의 상처가 많이 회복되었다. 나처럼 이혼의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혼자행복학교 참석을 권하고 싶다. 이혼자행복학교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느껴보기를 바란다.

■ 세례 간증



/ 김강현 성도(이촌공동체)

주님을 절대 놓을 수 없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 나는 예수님의 존재를 머리모만 알고 있었다.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의 중요성을 몰랐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말씀도 가볍게 여겼다. 반쪽자리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보이는 죄, 은밀한 죄를 거듭해서 지으면서 익숙해졌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느낄 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여러 차례 말씀과 사랑을 통해 찾아오셨다. 내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고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나는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걷어 차버렸다. 나는 내 멋대로 살았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다. 그렇게 병들고 있는 내가 너무 싫었지만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더니 조금씩 달라졌다. 난생 처음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만나고 싶어 울부짖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믿지 않는 내 자신을 탄식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버

리셨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무렵 기적과 같이 성령을 체험했다. 내 멋대로 살아온 길에 대한 통곡과 함께 한달 반이 넘도록 끊임 없이 주님 앞에서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다.

새사람으로 바뀐 이후에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새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했다. 나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끊임 없이 갈등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이어지던 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게 해주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32년 동안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이 쉬울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붙잡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고통의 길을 걸어야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놓을 수 없었다. 내가 구원의 마지막 열차에 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나와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나는 그동안 못 다한 사랑과 정성을 베풀고, 전적으로 말씀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

장로칼럼

고목나무에 다시 꽃 피우자!



방찬중 장로
(양재 농어촌선교)

가을의 정취가 한껏 무르익은 황금빛 들판에서 추수하느라 여념 없는 농부들을 바라보며 25년 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떠올려 본다. 경남 밀양의 한 작은 농촌교회를 방문했었다. 그곳의 목사님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는데도 치료받을 형편이 못 돼 종양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사모님은 임신 중에 발일을 하다가 급성하혈로 유산을 해 평생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고 했다. 사모님과 목사님 사연을 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전남 장흥의 한 교회에도 갔었다.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는 와중에도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중증장애인 노인들을 돌보는 목사님 내외분이 계셨다. 대소변을 다 받아내면서까지 극진히 섬기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면서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평생 동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주님께서 심어 주신 마음이다.

나는 오직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사역만 25년 동안 해오고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사역에는 하나님의 진한 눈물이 배어 있다. 도시의 대형교회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역이자,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농어촌은 과거와 달리 많이 발전하고, 생활과 여건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리가 섬겨야 할 농어촌교회와 목회자들의 현실은 아직도 궁핍하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만이 선교라는 고정적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은 해외

선교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 누구의 관심과 후원도 없이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있다. 복음화 비율이 2% 미만인 척박한 땅을 오늘도 묵묵히 섬기고 있는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칭송받아야 한다. 도시의 대형교회가 농촌에서 자란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주해서 탄생한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농어촌교회에 빚진 자다.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의 대동맥이라면, 농어촌교회는 실타래줄이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농촌교회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방지한다면 우리 몸의 실타래줄이 사라져 중대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고목나무에 다시 꽃이 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앙인에게 부활은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농어촌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이 귀한 사역에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이미 많은 분들이 농어촌교회사역에 동역해주고 있다. 윤형주 장로님과 함께하는 농어촌 러브소나타가 이미 13회를 넘었고, 재능기부팀의 지속적인 헌신으로 농어촌교회 리뉴얼사역이 힘을 얻고 있다. 농어촌교회에서 공수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또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교회가 너무 많다. 경북 구미의 한 시골교회에서는 버려진 영아들을 입양해 미래를 이끌 지도자로 양육하는 입양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농어촌교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우리 모두가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수고했으면 좋겠다. 서빙고와 양재 농어촌선교팀원들의 헌신과 수고도 위로하고 싶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빙고 농어촌선교 010-3565-9260
양재 농어촌선교 010-9085-1677

권사칼럼

하나님의 성품 닦기



홍무자 권사
(양지 온누리교회)

조금은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양지 온누리교회 양지공동체 온유 2순을 자랑하고자 한다. 지난달 있었던 일이다. 순모임에서 그간 알지 못했던 자녀교육의 이치를 깨달았다.

9월 9일 추석을 앞두고 아파트 직원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려고 차에 올라 앉아 기도하는 순간 “꽝” 소리가 났다. 어떤 젊은이가 내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자녀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고, 보험처리와 각종검사를 받느라 종일 시달렸다.

집에 왔더니 순모임 시간이 다 되었다. 급한 마음에 자녀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순모임을 하러 갔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상당히 힘들었는데 순모임에 참석했더니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순장님이 순원들의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하셨다. 다음세대들을 위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 싶었다. 우리 순모임에는 평원, 효원, 예지, 지환, 산 이렇게 건강하고 착한 5명의 차세대가 함께 참석한다. 순원들이 아이들 주위에 둘러앉았고 아이들이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다. 이상문 부순장님의 첫째 평원이 차례였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사람들을 보살피고, 무엇이든지 나눠주고, 사랑해줄 것입니다.”

평원이의 고백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대통령, CEO 등 부자가 되는 것이 보통 아이들의 꿈인 줄 알았다.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사회복지사가 10대 아이의 비전일 줄은 생각조차 못했었다. 알고 보니 평원이가 그 아름다운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부모님의 산교육 덕분이었다.

평원이의 조부모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넘치는 분들이었다. 오갈 곳 없는 이웃들이 몇 십 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집터를 제공해 주고, 그들이 이주할 때 보상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들 손에 쥐어주신 분들이다. 본인들 보다 이웃사랑이 먼저인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라는 분들이다. 그런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 평원이가 이웃들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비전을 품는 것은 어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크리스천 부모들이 본받아야 산교육이요, 덕목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나는 내 위주로 목표를 세워 자녀들을 양육했었다. 내가 세운 목표에 자녀들이 따라오기를 강요했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평생 깨닫지 못했던 자녀교육의 이치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닦는 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교육이었다.

부족해서 평생 깨닫지 못했던 것을 순모임을 통해 알게 됐다. 교통사고를 핑계로 순모임에 불참했다면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어쩐지 다음 순모임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길만 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순모임만큼은 빠지고 싶지 않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김원철, 장진명
선교사 부부

이곳은 적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밤과 낮의 길이가 거의 같다. 오후 6시만 넘으면 금방 어두워지고, 아침 6시면 어김없이 해가 떠있다. 밤에는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일몰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일찍 귀가한다. 8시쯤 아이들과 함께 잠이 든다. 우리에게 새벽시간이 참 귀하다. 묵상과 기도할 때 각종 새소리가 들리곤 하는데 정말 좋다. 새들도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곳의 경제중심이 되는 유통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에는 인도인이나 레바논인들이 많이 종

사하고 있다. 그들이 천연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제력을 쥐고 있다. 그들에게는 내가 발견한 특별함이 있다. 그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곳에 정착했고 살고 있다. 할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 성공한 경우가 많다. 어떤 이들은 링갈리어(현지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성경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성공했는지 중요하진 않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 3대에 걸친 노하우의 축적이 그들의 성공에 큰 힘이 된 것 같다.

한국을 떠나오기 전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곳에 가면 언더우드, 로제타 홀 선교사 등 대를 이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다. 나도 이곳으로 올 때 ‘아프리카에서 10년은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지는 돌아보게 된다.

“콩고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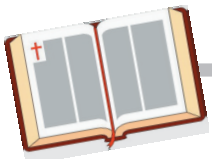
나중에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정착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까. 어려운 환경에 있을수록 자식들에게 그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생각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이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이곳은 지금 정치적 혼란기에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올해로 끝나는데 이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불안요소다. 얼마 전 야권에서 실시한 반대시위 도중 과잉집압, 방화, 약탈 등으로 50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방세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향한 다름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연말로 갈수록 정국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또 다른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현지인들과 외국인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시위는 보통 현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

심의 외곽에서 벌어지는데 시위가 있는 날이면 도심이 텅 비게 된다. 버스와 택시 등이 운행을 하지 않아 도심 외곽의 현지인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관이나 상점들도 문을 닫고, 학교도 휴교한다. 우리 현장도 3일 동안 문을 닫았었다.

이 땅에는 천연자원이 많고, 콩고강을 둘러싼 풍부한 수자원과 밀림이 있다. 한반도의 8배나 되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최빈국에 속한다. 0.1%의 소수가 모든 부를 독점하고 권력 다툼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리더의 부재가 이 땅을 더욱 아프게 하고,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도 콩고민주공화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고난을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와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지만, 그분은 겸손하시기에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겸손은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요된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운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지극히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시는 여정은 하늘에 계신 분이 낮아지신 과정입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요 10:18).

예수님이 스스로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발성이요, 자기 주도성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후에도 십자가를 향하여 스스로 가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어 상황에 이끌려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자발성과 자기 주도적인 선택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철저한 낮아지심

그리스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낮아지셨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규칙이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를 낮추려고 합니다. 어떤 수도사는 매일 저녁 회초리를 갖다 놓고 하루 동안 잘못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때리는 것으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낮아질까요. 어떤 사람은 형식이나 제도를 통해 낮아짐을 표현합니다. 특별한 옷을 입거나 독특한 습관이 스스로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아는 더 강해지고, 자기 의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같이 낮아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예수님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과 낮아지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어디서 나타나야 할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춰야겠다’, ‘내가 낮아진 인생이 되어야겠다’, ‘내가 겸손해야지’ 등의 자기규칙을 만들지 마십시오. 유대인

들은 금식하면서 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어놓는 것을 겸손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떠한 형식과 제도는 우리를 낮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낮아지심의 법칙입니다.

겸손은 잠잠히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죽으시기 이사가 53장의 말씀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온유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철저한 순종이나 아니냐를 증명하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분노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 아닙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이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은 조용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은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순종, 잠잠한 순종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 다할지라도 조용히, 잠잠히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시 40:8).

이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품었기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잠잠히 순종하는 것이 낮아짐이며 겸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낮아지심, 자발적인 낮아지심, 순종을 통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철저한 낮아지심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품고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묵묵히 꽃피우고, 열매 맺는 식물들처럼



정수진 상담사
(서빙고 상담센터,
원예치료사)

끝날 것 같지 않던 혹독한 무더위가 물러가고, 조금은 쌀쌀하게 느껴지는 바람이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알린다. 찌는 더위에 단비를 호소하던 초목들도 이제는 편안해진 모습

으로 붉고 노랑게 옷을 갈아입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가을이면 식물들은 치열했던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한 고된 작업을 시작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열매를 맺고, 화려한 단풍으로 치장한다. 거리에 나뭇그늘은 낙엽들도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고, 새로운 해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식물들의 분주한 움직임이다.

식물과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은 매우 흡사하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떨어져 새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보며 삶을 재조명하고, 삶에 대한 통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식물들 직접 키우고 돌보는 양육경험을 통해 하

나님의 돌보심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도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다.

식물의 잎의 녹색은 낙원(눅 23:43)의 이미지와 가장 가까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따스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 준다. 이러



한 매커니즘을 토대로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영적 측면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원예치료(Horticultural Therapy)가 보완대체의학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에게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 누군가는

가을을 식물들이 열심히 살아온 일 년을 마무리하고 닥쳐올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른 누군가는 가을을 지난 여름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식물들이 여유를 즐기고 자랑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가. 어떤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을풍경을 감상하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라고 찬양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열매 맺는 식물들

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빛의 열매(엡 5:9)를 맺는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 볼 것이다. 세상의 유희와 시험에서 승리하여 여유를 즐기며 기뻐하거나, 땅에 떨어진 낙엽처럼 절망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가을을 맞이하고 보내든 우리가 식물들 바라보며 통찰해야 할 것은 아무리 덥고, 춥고, 힘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몸을 바쳐 유익을 끼치고, 함께 살아간다. 이 가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엡 5:8-9)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엡 5:11) 말이다.

어느 계절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묵묵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생명체들에게 양분이 되어주는 식물들을 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란다.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력 넘치는 자연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사랑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 :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꿈꾸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꾸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과워워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꾸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헌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안민경 간사(02-3215-3523)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그 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일대일과목별특강안내
일시: 주일 오전 8:10~10:1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강의: 10/16 성령충만(박철웅 목사)
10/23 시험을 이기는 삶(박성은 목사)
참가자격: 모든 양육자

어린이 창조과학스쿨
일시: 10월 15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내용: 성경 속 과학 법칙, 창조와 진화
신청: 아이스쿨, 창조과학선교팀
(010-3869-7785)

성인 창조과학스쿨 '창조, 믿음의 뿌리'
일시: 10월 30일(주일)~11월 13일(주일)
장소: 서빙고 캠퍼스 홍보관
신청: 아이스쿨, 온누리 창조과학선교팀
(010-3869-7785)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스타트리아 카데미) 생활복지사 모집
근무: 주5일(월~금), 오후 1시~오후 8시
장소: 안산 온누리M센터 1층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문의: 이경숙 원장(010-5034-0092)

CMN 마하나임팀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장소: 남부 교회(종로구 창신동) 러시아어 예배
일시: 10월 24일(주일) 오후 2시 남부교회
사역: 의료, 미용, 한방, 수기 치료, 경로사전, 진료 지원
모집: 의료 봉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문의: 권세운 팀장(010-8898-3719)

CMN 마노아팀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장소: 파주 광탄 아프리카난민 교회(광탄엘림 순복음교회)
일시: 10월 16일 12:00 서빙고 주차장 출발
모집: 간호사, 의사, 영어 봉사자, 씬터 건물 벽화 봉사자
문의: 송영주 팀장(010-3005-4787)

CMN라파팀 의료봉사자 모집
안산엠센터: 내과/의사, 간호사 (셋째 주일 오후 2시~5시)
서빙고: 간호사(셋째 주일 오후 4시~6시)
문의: 심형섭 팀장(010-3227-9915)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충성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양재 헬로맘 임신출산후 스쿨
일시: 10월14일~11월18일(금)
오전10시30분~오후2시
장소: 비전홀B
신청: 아이스쿨 홈페이지(화비 6만원)
문의: 010-9661-6105, 02-570-7349

볼어겐 아프리카 선교 세미나
일시: 10월 17, 24, 31일(3주간)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 드림홀(B2)
담당: 장 디디 목사, 박광석 선교사
문의: 프랑스어 예배팀(010-3912-9393)

*계시판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 오전9:00/3부 오전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4:00(대청예배)/6부 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시 분당 / 4부 오후 4시 분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 매주 수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소년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분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분관2층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분관2층
파워워이브 오전 9:00 파워워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웰터

인천

032.437.9686

주일예배
인헌 글로벌캠퍼스(IGC) 운영재단 B1층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 성인 3부 오후 1시

차세대 (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 - 오전 11시
어린이영어예배 오후 1시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고등부 오전 9시/대학청년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
사랑부 오전 11시 / 몽골어예배 오후 1시

주중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새벽기도회(월~토) 5:2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강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워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영상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11:00/ 지하1층 무어홀
꿈이지라는 땅(유년)/ 11:00/ 지하층 위더슨홀
꿈이지라는 땅(초등)/ 11:00/ 지하1층 킬보른홀
파워워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MARKETPLACE TRANSFORMATION

일과 신앙 리더십 훈련 코스

- | 주제 | Marketplace Ministry
- | 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 ~ 13일(목) 오후 7:20
- | 장소 | 온누리교회 서빙고 2층 순형홀(월,수,목) B1 한동홀(화)
- | 회비 | 30만원 (계좌번호 : 573-910016-46805 / 하나은행 / 예금주 : CCF)
- | 문의 | 02-570-7438
- | 주최 | CCF, IMT

※한국어 통역과정입니다

Onnuri
Community Church

